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rio of major shipowners poised to share Arc7 LNG newbuildings at DSME

대우조선해양이 기대하고 있는 쇠빙형 LNG선 6+6척에 대한 수주가 9월 중에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러시아의 Sovcomflot, 일본의 Mitsui OSK, 중국의 China Cosco Shipping 등 3개의 선주들이 분담하여 발주할 전망이며, 옵션분 6척 중 일부에 대해서는 대우 조선해양과 중국의 Hudong-Zhonghua Shipbuilding이 수주 경쟁 중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Pantheon Tankers looks at more suezmax newbuildings

Pantheon Tankers가 삼성중공업에 유조선 2척을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스크러버(scrubber)를 탑재하지 않는 158,000DWT 급 전통 유조선에 대해서 삼성중공업과 건조 계약을 논의 중이며, 추가 옵션분은 없다고 보도됨. (TradeWinds)

Evergreen rekindles boxship newbuilding hunt with neo-panamax enquiry

대만의 컨테이너선사 Evergreen Marine이 최대 10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기 위해 5개 야드와 논의 중이라고 보도됨. Evergreen은 옵션분 4척을 포함하여 6+4척 건조 계약을 발주할 가능성이 있으며 총 계약규모는 1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Evergreen 이 계약을 논의 하고 있는 조선사들은 중국의 3개 야드와 일본의 Imabiri shipbuilding,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North Field Expansion key to Qatar's huge LNG ambitions

COVID-19팬데믹과 저유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Qatar는 North Field Expansion(NFE) LNG 프로젝트의 진행을 강행한다고 보도됨. 입찰 진행 과정 등 일부 지연되긴 했으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2020년 내 최종투자결정(FID)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Novatek pushes ahead at remote Arctic LNG 2 scheme in Russia

러시아의 가스생산업체인 Novatek은 전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Arctic LNG 2 프로젝트를 강행한다고 보도됨. 프로젝트의 첫번째 트레인 가동 예정일이 2023년으로, 당초 계획한 2022년 보다 1년정도 스케줄 지연되었다고 알려짐. (Upstream)

삼강엠엔티, 해양경찰청 경비정 3척 400억원 규모 수주

삼강엠엔티가 400억원 규모의 경비정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조달청과 200톤급 경비정 3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선박 인도기한은 2024년 2월 15일 까지라고 보도됨. 삼강엠엔티가 수주한 경비정 3척은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경비정 중에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노후선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